

송갑석 “정당의 주인은 당원 아닌 국민”

“당원 목소리 중요하지만 국민 우선할 수 없어”

최고위원회의서 ‘친명계’ 주도 당 혁신 논의 비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정당의 주인은 당원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은 정당의 근간이자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은 정당의 대리인”이라며 “당원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딱 한 달 전 민주당은 ‘당 혁신 기구’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연달아 패배하고도 우리 당은 평가와 반성, 그에 따른 혁신을 외면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송 최고위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혁신은 제대로 해야 한다”며 “혁신은 철저히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이뤄져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도 요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이 이날 당원보다 국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현재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 논의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팔’로 상징되는 특정 강성 팬덤 층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송 최고위원은 “국고보조금이 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정당에 지원하는 이유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라며 “혁신기구의 의제도 당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하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편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통한 뼈를 깎는 혁신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지를 두고 설왕설래 하느라 투쟁과 혁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다”고 반성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번 혁신위는 총선 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정당이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민주당을 혁신하자”고 역설했다. /김진수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호남과의 동행” 무엇보다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과반 승리를 넘어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호남과의 동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와 전주에서 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렸던 요인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전주 제3금융중심지’ 등 다른 지역과 똑같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민이 반색할 먹고 살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같이 말했다.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냐”며 “지방 분권과 지방 투자 활

국민의힘, 전국정당 실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광주매일신문-KLJC 공동인터뷰’ 통해 견해 피력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을 맞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14일엔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호남지역의 주요 현안 및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비 지원 등 호남에 대한 특별한 공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행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동서간의 여객 및 물류를 교류하고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견

성화가 급선무다. 각 지역마다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다. 저마다 당면한 현안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모든 지자체가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전체를 조망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이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각 지역사회가 저마다 비교우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 제 1년도 체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의 민심 향배와 투표 참여도도 총선 승패를 가를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기존 세대와 달리 정치 성향이 고정돼 있지 않고 무당층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중도층·MZ세대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여야, 대정부질문서 ‘日오염수’ 격돌

추철현 “수입 재개되면 총리가 책임질 건가” 한덕수 “충분히 믿을만할 때까지 수입 금지”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13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전일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이 같다면 윤석열 정부를 엄호했다.

민주당 추철현 의원(여수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압박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한국, 일본 등 167개 국가가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에 규정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협약 위반이 명백하므로 국제법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즉각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시킬 것이며,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니 알프스(ALPS·다핵종 여과장치)를 통해 걸러지 못한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만배까지 돼 있다고 나온다”며 “방사능이 범벅이 된 우럭이 잡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끗하지 않다고 다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깨끗하냐. 마셔도 되느냐”며 “총리님이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의견을 말했더니 ‘일본 총리냐’고 하는 질문이 어디 있느냐.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 /김진수기자

‘민주당 뭉’ 상임위원장 6명 선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뭉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새로 선출했다. 6명 모두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이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교흥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박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신동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위원장 교체는 민주당이 야당 뭉인 해당 상임위에 새 위원장을 내정한 때 따른 것이다.

이번에 뽑힌 위원장들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